

인사말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교화의 현장에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아픔을 어루만지며 종단의 위상을 높여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단의 내년도 살림에 대해 보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종단은 지난 수년간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와 건립, 승려복지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 종단 목적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기2561년 중앙종무기관 예산도 그러한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득이 시설특별회계로 전출액이 증가하기에 인건비나 신규사업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을 도모했습니다.

지난해 제안한 것과 같이 중앙분담금은 동결하여 교구의 부담을 덜고, 종도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분담금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3대, 제34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여러 종단의 제도와 사업을 성과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 여느 때와 같이 종단 발전, 불교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살펴주시고 지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강남 봉은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 종단의 공식 회의인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총무원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봉은사는 송유역불의 엄혹한 조선시대에 승과평이 설치되어 교학과 선수행의 전통을 크게 진작시킨 불교 중흥의 도량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강남 문화벨트의 중심이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1970년 정부 청사가 들어선다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탈해 간 옛 봉은사의 경내,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이 세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300미터 거리이지만, 그 높이만 553M, 105층의 규모로 국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전부지를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인 과제이지만 이런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목표는 요원해집니다. 더구나 보물 등 각종 국가지정 문화재가 가득한 봉은사에 미칠 영향은 지대합니다. 거대한 건물의 그림자로 경내가 뒤덮여 문화재 관리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빛 반사, 교통문제, 씽크홀, 소음, 진동 등의 영향도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대형 개발을 서울시가 초고속으로 승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종단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음에도,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불과 6개월의 사전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면 내년 상반기면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 됩니다. 개인이 집하나 고치려 해도 그 행정절차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2롯데월드도 20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사업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며 재벌특혜입니다. 오늘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계기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종단의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이 더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안건들 역시 깊은 관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점검하여 주시면 종단의 살림을 꾸려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수행과 삶을 통해 구현해 나가시는 주지스님들의 굳건한 정진을 기원합니다. 하루하루 좋은 날, 하루하루 큰 걸음 내딛어 가시기 바랍니다.